

제 83 회

1月 12日

- 本會가 주최한 第83 회
- 發明教室이 지난
- 1月 12日 發明장려관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每月 둘째 토요일 午
- 後 1時 30分에 開催
- 되는 發明教室은 이
- 달에도 1백여명이 踴
- 躍하여 盛況을 이루
- 었다. 이날 發明教室
- 에서는 한국발명원

건강신발 發明家

한국발명원 元仁浩 원장

30여년을 꾸준히 발명이란 외길을 걸어오며 300여 점에 이르는 각종 發明으로 인해 「한국판 에디슨」으로 불리는 元仁浩 원장이 건강양말에 이어 건강신발을 발명, 다시한번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90독일국제발명전과 '90 뉴욕 세계 전제회의에 이 건강신발을 출품하여 각각 金賞을 수상한 元원장은 헝가리와 건강신발의 합작 회사를 설립키로 했으며 중국과도 합작공장의 설립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元원장이 發明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전.

대학시절인 4·19때 입은 총상으로 낙향해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농촌운동을 전개하다가 농촌근대화를 위해서는 기계화를 통한 영농의 과학화가 시급함을 통감한 元원장은 이때부터 농기구 개량연구를 포함한 발명에 전념했다.

그는 건담직파기, 살충등, 4H용 배기장치 등 50여건의 발명을 통해 농촌근대화를 앞당겼으며 미생물발효기법의 개발로 인스턴트식품을 보급시켰고 세계 최초로 태양열과 풍력기술을 응용한 독창적인

동력장치 등을 발명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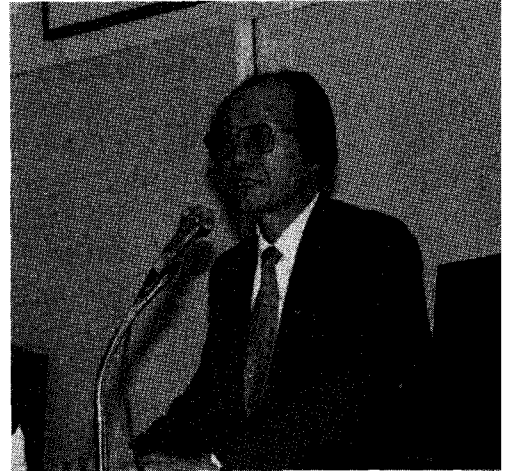
그가 최근 발명한 이 건강신발은 지난 87년 발명하여 국내외적으로 신기술의 인정과 수출시장성의 확신을 갖게 된 건강양말에서 비롯, 보다 새로운 차원의 신발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신발은 내·외 장재를 제조함에 있어 완전탈취 및 맛사지작용, 지압작용, 혈류촉진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무기물의 성능을 응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능면을 강조, 부각시켰으며 직조와 점착처리를 한 신소재발명품이다.

發明教室

成功事例 等 發表

- …元仁浩, 元仁浩의 成功…○
- …事例 發表에 이어 金…○
- … 實業 本會 조사부장…○
- …의 「발명의 經營과…○
- … 사업」에 대한 강의와…○
- … 洪載日 辨理士의 「産…○
- …業財産權制度」에 대…○
- …한 강의와 토론이 있…○
- …었다. 發明家の 成功…○
- …事例를 간주려 紹介…○
- …한다. <尹榮海 記>…○



元원장은 개발 당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다.

『직조, 편직, 색상 등의 문제는 세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나 화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 저로서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건강신발의 신소재를 찾기 위해 1백가지가 넘는 소재를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신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직접 신발공장을 찾아 다니며 눈으로 보고 배웠죠.』

'84년 개발에 착수한 이 발명은 6년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90년 완성, 그해 독일 국제발명전과 뉴욕 국제발명전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가 이런 저명한 국제발명전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1제네바국제발명전에 태양열과 풍력기술을 이용한 동력장치를 출품해 金賞을 받았으며, 제6회 뉴욕국제발명전에 풍수력을 이용한 장방형동력 발생장치를 출품해 역시 金賞을 획득, 이런 국제발명전에서 무려 30여개에 달하는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지난 82년 발명의 날에는 산업포장까지 받아 그의 화려한 발명업적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각종 국제전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발명품을 출품한 元원장의 발명에 대한 집념과 끈기는 어느새 그를 한국 발명계의 거목으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발명품은 이제 국내는 물론 미국, 서독, 일본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헝가리와 같은 동구권에 까지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세계의 유명브랜드에 선 계속해서 프로포즈가 들어오는 추세라 곧 그의 건강신발은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조짐이다.

현재, 세계 전문신발전시회에 출품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元원장은 각국에 産業財産權 出願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합작공장 설립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성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발명코자하는 분야의 정보획득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시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명에 성공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이야기하는 元원장은 또한 발명가로서의 긍지와 産業財産權法에 대한 방어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